

광주시, 올해도 취약계층·신혼부부 주거 안정 돕는다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임대 계약 부동산 중개료 최대 30만원 지원

광주시가 올해도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도 주택 중개보수 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이 이사를 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사철을 앞두고 고물가에 무주택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매매·임대 계약 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등이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 이외에 대리인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연 1회, 신혼부부는 최초 1회에 한해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정책으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광주시 소재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다. 타 시·도에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제외다.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주거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중개 수수료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라는 것

이다. 2022년 454건 1억 400만원을 지원한 이후 2023년 396건 9172만원, 2024년 414건 9403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원 사례 414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255건(61.6%)로 가장 많았고, 신혼부부 82건(19.8%), 한부모가정 41건(9.9%), 차상위계층 36건(8.7%) 순이었다.

통계청 조사결과 2023년 12월 기준 광주지역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수급자 6만5837가구, 차상위계층 3944가구, 한부모가정 9362가구, 신혼부부 2만5956쌍으로 총 10만5099가구다.

광주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거취약가구 비율에 따라 동구 730만원, 서구 1820만원, 남구

1450만원, 북구 3300만원, 광산구 2200만원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중개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면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소재지 관할 자치구 부동산 담당 부서 혹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호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사 비용을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 올해 4년차에 접어들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지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천원국사'로 따뜻한 온기나뉘오

광주시 서구 쌍촌동 천원국사 4호점이 최근 문을 열었다. 서구는 설 연휴 기간 취약계층을 위해 상무1동과 금호1동 천원국사 매장을 살날(29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 <광주시 서구 제공>



진월동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김병내 남구청장(맨 왼쪽)이 최근 진월동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다. 마설되는

지중화 송전선로는 180여m이며, 송전탑이 사라진 130평 규모의 자리에는 다목적체육관 이용자를 위한 주차 공간이 조성된다. <광주시 남구 제공>

북구, 기후위 기극복·탄소중립 대응 나선다

참여형 신규시책·녹색성장 비전선포

광주시 북구가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평두메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 운영'과 '탄소중립 실천가게 선정 및 지원' 등 참여형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비전선포식'도 개최한다.

'평두메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는 탄소 저장원 역할을 하는 평두메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평두메습지 탐사 기회를 제공해 주민들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습지 보존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월 중 추진된다.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북

구는 3월 중 북구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가게'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탄소중립 분야 전문가인 '탄소 코디네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 후 에너지 사용 절약 교육, 일회용품 사용 저감 안내 등 탄소중립 실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북구는 2월 중 '탄소중립 녹색성장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45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북구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계획과 전략이 담긴 장기 추진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2045 북구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올해 상반기 중 환경

부에 최종 제출해 탄소중립을 향한 첫 발걸음을 뒀 예정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 차별없는 지역 공동체 '인권마을' 조성

광주시가 인권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권마을'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주민이 생활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권마을은 나이·성별·인종·장애 여부·지위 등에 따라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문제를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해결하고 마을 차원의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인권 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인권마을 지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까지 12년간 167개 마을을 인권마을로 지정해 16억57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만 15개 마을을 인권마을로 지정하고 1억26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10여개 마을을 인권마을로 선정해 1억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다만 사업을 '인권 인식 단계 1~2년차', '인권 실천 단계 정착 3~4년차', '인권 실천 단계 확산 5년차 이상'의 3단계로 세분화해 예산을 차등지원 할 방침이다.

특히 인권마을 아카데미 추진 마을(단체)로 지정된 경우 2000여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인권마을 아카데미는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및 분석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025년 핵심 단어는 '불평등 또는 차별'로 인권마을들은 구체적인 마을별 의제를 설정해 직접 인권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인권실태 조사와 놀이·문화제·영화 등 인권 교육, 인권 학습 모임 등을 통한 인권활성화 양성 등을 위한 컨설팅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23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24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내 사업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임산부 위한 '동구 맘택시' 운영

광주시 동구가 올해도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해 '동구 맘택시' 운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동구 맘택시'는 임산부·영유아 가정의 이동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의료목적외출 시 교통비(택시 요금)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동구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동구 맘택시는 지난 2023년 사업 시행 초기 교통비를 월 최대 2만원 지원했지만 지난해부터 교통비 지원 금액을 월 최대 3만 원으로 증액했다. 대상 영유아 월령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지난해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

맘택시는 동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0~24개월)이라면 누구나 방문 신청(보건소·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과 온라인 신청(정부 24) 후 이용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설 연휴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단속

영산강유역환경청, 2월5일까지

설 명절연휴 기간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감시와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2월 5일까지 특별감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연휴 기간을 전·중·후 단계별로 나눠 취약지역 집중점검 및 순찰, 상황실 운영, 사업장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연휴 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44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며 환경오염 취약시설 46곳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집중점검 대상은 사고 위험이 있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고농도 약성 폐수 배출 사업장 등이다.

설 연휴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는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연휴가 끝난 뒤인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영세·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민 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상황실에 신고할 수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